

구례군, 오산 관광 케이블카 설치 추진

봉서리~오산 사성암 2.34km
불교관광시설·레저액티비티 등
2000억 들여 2025년 완공
1209억 생산유발·774명 일자리

구례군이 문척면 오산권역에 오산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해 2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작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대원플러스그룹과 구례 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산 사성암 일대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불교 관광시설·레저액티비티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18일 구례 오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원플러스그룹의 자회사인 ㈜다우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확정했다.

오산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은 구례 봉서리에 위치하며 상부정류장은 오산 사성암 인근으로 섬진강을 건너 이어진다. 계획연장은 2.34km이다.

오산 사성암은 명승 제111호로 지리산과 섬진강, 구례 들녘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경관으로 유명하다.

구례군과 대원플러스그룹(주)다우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케이블카 조성으로 120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74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정 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과 대원플러스그룹은 군 관리계획변경 및 케이블카 실시계획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두 트랙으로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원플러스그룹은 2012년 80층 299m로 당시 아시아 최고고의 주거 건물인 해운대 마린시티 두산위브 더제니스와 2017년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

카인 송도해상케이블카, 2020년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파크가 포함된 복합해양레저단지를 경기도 시흥에 조성했다.

군은 오산 케이블카를 핵심아이템으로 두고 2000억 원 규모 투자를 통한 오산권역 관광 활성화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채류형 관광시설, 섬진강 생태공원 등 자연생태관광지 ▲스카이바이크, 스카이스터 등 레저액티비티 ▲오산 대불, 사성현 테마스토틀파크 등 불교테마 문화관광시설 설치 등이 계획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은 전남 내륙권 관광 중심지의 역할을 해왔으나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오산 케이블카를 구례군의 핵심 관광 아이템으로 집중 육성하고 오산권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례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 25일 광양클리닝센터 기동 기념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장애인표준사업장 '광양클리닝센터' 새단장

첫가동 14년 만에 규모 두배
장애인 근로자 65명 근무

포스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가 광양제철소 클리닝센터 새 단장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

광양클리닝센터는 포스코 직원들의 근무복 등을 세탁·배송하는 전문사업장으로 지난 2008년 4월 처음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기반을 다져왔다.

포스코휴먼스는 광양클리닝센터 직원 수가 설립 초기 31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종전 1층 2000㎡(600평) 규모에서 4000㎡(1234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증축을 결정하고 14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다.

개축된 광양클리닝센터는 세탁공장과 사무부의 동을 분리하고, 직원 휴게실과 샤워실을 확장해 직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1명에서 65명으로 6배 가량 대폭 확대되면서, 이들에게 더욱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전반적인 세탁 공정 레이아웃 개선 및 자동화 세탁비인 '연속세탁기' 도입으로 업무효율을 향상시켰으며, 재활·보건 상담실 등 장애인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 만족도를 높였다.

주요 구간 문턱 제거·점자 안내판 설치 등 프리패스 이동로를 조성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 CCTV를 늘려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도용방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포스코휴먼스는 더욱 쾌적한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장애인 고용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희대 포스코휴먼스 사장은 "기업 시민 경영이념 하에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무엇보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국내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광양·포항·서울·인천 4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전체 직원 중 48.8%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314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이순신 숨결 따라 낮달 산책투어 하세요”

여주시 내달 2일부터 운영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여주시가 스토리텔링 체험관광 상품 '이순신 숨결 따라 낮달 산책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투어는 4월 2일 첫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0명 한정으로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역사문화 유적을 산책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해보는 관광객 참여형 상품이다.

판소리의 감동을 느껴보는 국악 버스킹과 난중 일기 서책 만들기, 타루비 탁본, 장군복 입어보기,

신호연 날리기 등 다양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며 방문지별 주요 캐릭터를 획득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성인 1만원으로 65세 이상이거나 여주시민 또는 학생 등은 50% 할인된다.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면제 대상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체험형 관광 상품 운영으로 호국충절의 도시 여수를 알리고,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과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체험객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이순신 장군 숨결 따라 산책투어' 참여자들이 장군복 입어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시 제공>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예고

다음달 말 등재 예정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가 최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르면 4월 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할 예정이라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근대 이후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오봉산 구들장은 국내 최대 구들장 채석산지로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50여 년간 채석이 이뤄졌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담당했다.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에는 소탈구지길, 당시 채석과 운반에 사용됐던 각종 도구와 장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산 전체에 운반로가 거미줄처럼 산재

돼 있으며, 갈지(之)자 모양의 길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보존이 잘 돼 있다.

보성군은 고유의 난방문화인 온돌문화와 온돌의 근간이 되는 구들장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오봉산 구들장의 우수성을 조명,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해 1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현장 방문, 소탈구지길 전수조사와 정비, 구들장 채취자 인터뷰,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당시를 재현하고 오봉산 구들장의 역사적·광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구들장을 채석했던 곳은 주로 오봉산 정상 또는 8부 능선 지점이다. 화산 폭발 때 여러 차례에 걸쳐 화산재가 쌓이면서 생긴 층상절리가 잘 발달돼 있어 구들장을 뜨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보성군은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우마차길.

밝혔다. 한편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은 지난해 12월 산림청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도 지정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2000여명에 100만원씩
28일~4월 1일까지 접수

순천시가 문화예술인 등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강사,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다.

대상자는 약 20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주사무소가 순천시에 등록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만 가능하

다. 접수방법은 5부제로 운영한다. 첫날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1.6)에 해당하는 이들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과, 프리랜서 강사는 평생교육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기사는 교통과로 신청서,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해당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한 만큼 그동안 소외되고 힘들었던 대상자들에게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도 민간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